

## 지방정부에서 이익단체들의 활동전략과 영향력에 관한 연구 - 수원시를 중심으로 -

김익식\*·장연수\*\*

###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III. 분석결과
- IV. 결론

본 연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내에서 이익단체들의 목표와 전략, 영향력이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목표 면에서 연고단체는 친목, 직능단체와 전문가단체는 구성원의 이익도모를 가장 강하게 내세웠고, 정책면에서는 전문가직능연고단체는 정책집행에, 직능시민단체는 정책문제의 제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익단체장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만나는 사람으로는 담당 실국장과 시장부시장, 시민단체를 주로 찾아가 만나는데 만나는 접촉도와 관계자의 영향력간의 상관정도는 .54(p <01)로 매우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익단체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 관계자를 이익단체장이 잦은 대면을 통해 평소 지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바리는데 특히 종교단체와 직능단체가 긴밀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이 연고단체, 시민단체, 직능단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단체는 그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불만족 시에는 단체간 연합활동을 시도하여 목표를 추구한다.

□ 주제어 : 이익집단, 이익집단 목표와 전략, 이익집단의 영향력

\*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대우교수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이익집단이란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옹호하고자 조직화된 사회집단으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Key, 1964) 또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위해 다른 집단에게 그들의 주장을 하는 집단(Truman, 1971)을 말한다. 박천오는 이익집단이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성되어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구성원들의 이익증진에 힘쓰는 이익집단만이 아니라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공익집단까지 포함하고 있다(박천오, 1999:239~259).

우리나라에서 이익집단은 1960년대 중반부터 공업화를 통해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진행 국가의 통제력이 완화되면서 이익집단의 수와 그에 참여한 참여자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sup>1)</sup> 동시에 그에 관한 연구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영래, 1997). 현재 우리나라의 이익집단에 대한 주된 연구를 보면 이익집단의 양적·질적 성장(안해균, 1963; 김영래, 1990)이나 관변단체(박경태, 1997) 또는 전문직단체(김왕식, 1981)를 중심으로 한 활동 연구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정책이나 참여 전략방면에서 4대 지방선거에서의 이익집단들의 참여전략(이정희, 1995) 및 정책과정상의 영향력과 활동 패턴(박천오, 1999; 이만희, 1999) 등 이익집단의 참여 전략이 어떠한지 어느 한 활동 분야나 사례를 주제로 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로서 민간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이익단체들의 구성과 운용 및 그들의 활동전략과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약해져 가는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의 규범을 정립하고 공익을 증진시키는 이익단체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수원시 지방정부 내에서 이익단체가 그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어떤 활동과 전략을 행사하고 있는지 분석하므로 지방자치 단체의 바람직한 운영은 물론 이익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자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수원시 이익단체의 구성 목적과 참여 동기는 어떠한가?

1) 우리나라에서 이익집단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때를 김영래는 1987년 6월 민중항쟁이후로 보고 있는데 1974년 당시 1,034개이던 이익단체가 1984년에 1,322개로 증가하였고 1994년에는 2,181개로 증가하였다.

둘째, 이익단체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과 그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가?

셋째,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익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익과 사익을 좌우 양측으로 연고단체, 직능단체, 전문가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시민단체는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구성된 집단은 아니지만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으로 보아 넓은 의미에서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표 1> 연구의 대상 범위

유형	단체	비고
연고단체	12	경주김씨 종친회, 전주이씨 종친회, 수원백씨종친회, 서울향우회, 전북도민회, 재수영남향우회, 수원고등학교동창회, 수원공고동창회, 수원농고동창회, 수원여고 동창회, 아주대 동창회, 경기대동창회
직능단체	10	시장연합회, 버스운송사업법인,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용 사협회장, 미용사회회장, 음식점중앙회, 숙박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문가단체	8	카톨릭농민회, 한의사회, 약사회, 기자협회, 예총, 한교조, 교총, 전교조
종교단체	3	영락교회, 불교, 토착종교
시민단체	8	YWCA,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소비자단체, 여성회, 재향군인회, 장애인연합회, 노인회
계	41	

연고단체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총동문회를 범주에 포함시켰고, 이어 직능단체에는 상공회의소, 한국노총본부, 민주노총본부, 농협지역본부, 유흥업소나 숙박업소 중앙회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전문가단체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변호사회, 한교조지부, 교총지부, 전교조지부를 포함시켰고, 종교단체에는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유교를 포함시켰으며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에는 YMCA, YWCA, 흥사단, 경실련지부, 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을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이익단체의 소재지를 파악한 다음 이익단체장들의 성별 및 연령별, 출신고

등학교 및 출신대학에 관한 프로필을 조사하였다.

이어 단체장들에게 그들의 목적과 활동전략 등에 관하여 설문하였는데 설문 결과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각 이익집단을 종축, 설문요소를 횡축으로 교차(Cross-tab)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익단체장의 성장지와 출신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한 문항은 인터뷰를 통해 조사되었고 그 결과는 빈도분석을 통해 처리하였다. 특히 이익단체 활동은 인지도와 자치단체간의 관계 및 정책결정과정, 활동전략간의 관련변수는 상호 관련 속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익의 대변성, 인지도, 봉사도, 단결성, 공정성 등의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하여 이익을 대변하며 동시에 이런 요구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선거활동이나 단체간 연합활동의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하여 그들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1. 이익단체 형성이론

대부분 이익과 집단과 활동을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는데, Bentley는 이익이 없는 집단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익이란 집단과 동일한 개념이며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익단체란 개인들의 집합체(a collectivity of individuals)로서 공유된 목표 또는 가치(shared goals or values)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래, 1997 : 21).

#### 1) 벤틀리의 갈등(conflict)이론

벤틀리는 자율적인 개인의 중요성을 극소화하는 입장에서 ‘개인은 활동을 통한 존재로서만이 가치를 인정 받는다’는 주장을 한다. 따라서 활동에 의해 집단이 형성되며, 이들 집단은 상호간의 압력을 가하며 균형을 이룬다고 보고 있다. 집단압력간의 균형은 사회의 존재상태를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정치과정을 형성하게 된다(A. F. Bentley, 1967).<sup>2)</sup>

2) 갈등이론을 통하여 벤틀리가 이익집단의 형성을 주장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은 압력과 저항이라는 힘의 개념에 입각하여 집단의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집단의 성장이나 존재의 요인을 뚜렷하게 설명하는 것이다(김영래, 1997).

## 2) 트루먼의 파열(disturbance)이론

상호작용, 접촉관계에 따른 이익집단의 형성요인 설명 : 접촉이 상호작용을 초래하고, 상호작용이 공유된 태도로 유도되며, 이런 상호작용의 변화는 집단의 형성을 나타낸다. 즉, 어떤 시점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균형상태가 깨지면서 한 사회의 일부 층이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될 때 균형을 찾기 위하여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이런 단계에서 집단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파열이론)(D. Truman, 1971).

## 3) 샐리스버리의 교환(exchange)이론

이는 트루먼의 파열이론을 지도력을 고려 재구성한 일종의 시장개념에 의한 이론으로서 조직기업가가 잠재적인 집단구성원에게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혜택을 준다면 구성원들은 새로운 집단에 형성,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혜택에는 세 가지 종류 즉, 목적적(purposeful), 물질적(material), 연대적(solidary) 혜택이 그것이다(Salisbury, 1969).<sup>3)</sup>

## 4) 올슨의 합리적 선택(rational-choice)이론

올슨은 경제적 관점에 따른 합리적 인간의 선택기준에 의존하고 있다. 그는 이익집단의 발생요인으로 자선(philanthropy), 강제력(compulsion)과 선택적 혜택(selective benefits)을 들고 있다(Olson, 1965). 합리적 인간이면 선택적 혜택의 차원에서 이익집단에 참여한다고 보고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가장 공통적인 요인은 선택적 혜택인데, 이는 오직 단체에 가입한 회원에게만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반면에 그 조직에 속해 있지 않으면 어떤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에 가입한다고 보고 있다(김영래, 1997).

3) 목적적 혜택은 구성원에게 어떤 접촉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이념적 또는 쟁점 지향적 목표의 추구하고 관련 있는 집단적인 것이며 물질적 혜택은 집단 참여가 물질이나 금전적 보상, 연대적 혜택은 사회적 보상을 추구하고 위해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다. 샐리스버리는 정치적인 정향을 가진 집단이 주로 목적적이며, 연대적 혜택을 추구는 집단은 참여를 통한 사회화와 우정 등에 관심이 있다고 주장한다(김영래, 1997).

## 2. 선행연구의 고찰

### 1) 한국의 이익집단 연구경향과 사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이익집단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왕식은 이익단체 중에서 전문직 단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의 연혁과 주요 활동 및 지적자원 조사를 통한 회원수의 추이변화와 재정력의 변화 추이, 정책결정구조 등에 관하여 연구(김왕식, 1981)하였고, 김영래는 이익집단의 정치참여 비교연구에서 한국과 캐나다간의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에 관하여 분석(김영래, 1995)연구하였다.

그리고 문태훈은 한국의 이익집단과 이익갈등 및 조정제도 파악하고자 이익단체의 지도자와 관련된 공무원 500명을 중심으로 정책유형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 규제정책에서 이익단체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주장(문태훈, 1997)하고 있고, 김혁래·문태훈·장영국은 이익갈등 조정과정의 특징과 조정에서 관료들의 역할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정치인,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김혁래 외, 1997)하고 있다.

정책결정과 집행은 정책과정에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합법적·비합법적 제도적 참여기관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분석한 결과 1977년 현재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을 추진하고 정당화시켜 주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조석준, 1977: 314-318; 김영래, 1997: 442-443).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정부차원에서 연구된 것이 대부분이며 지방정부차원에서 이익집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지방정부의 이익집단에 관한 연구로 이정희의 연구를 보면 지방정부의 선거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이익 표출전략 사례를 1995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환경단체는 이렇다 할 가시적인 연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여성단체는 여성정치지도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민주당과 민자당이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수첩을 배포하는 등의 지원활동을 하였다. 노동단체는 지방의회에 노조출신 지도자를 진출확대를 도모하여 정치세력화를 피하였으며 무소속출마를 통해 선거과정이나 당선 후 등의 과정에 노조들이 지원하면서 동시에 금권, 혈연, 학연 배제, 공명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시민단체는 공명선거와 선거부정 고발, 감시활동을 적극 실현하려 노력하였는데 경실련, 홍사단, YWCA, YMCA,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단체가 참여하였다. 대전에서는 서구청의 건강체련관 건립을 놓고 녹색곰두리와 재활협회, 맹인복지회 등 장애인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였고, 인천에서는 택시노력 인천지부가 완전월급제화 정착과 처우개선을 위해 인천시 어머니회는

학교급식문제를 선거공약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부산약사회는 구청장과 시의원 후보에 직접 출마시켜 후보를 직간접으로 지지하였다.

그리고 이익집단은 그들의 이러한 활동이 민주화나 정책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견해에 있어서 시민집단 76.7%, 전문가 집단 56.2%, 노동자 집단 46.4%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정희, 1994).

이익집단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이익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과 관계없이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차원에서 연구된 이익집단 연구에는 김포 쓰레기장 매립지 및 군포시를 중심으로 한 소각장 입지분쟁 등 사례연구가 있다.

## 2) 미국 워싱턴 시에서의 이익집단 사례

Lehman and Tierney는 워싱턴시의 이익집단을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과 회원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개인으로 구성된 이익집단에는 우체부협회, 치과협회, 유색인종 발전협회, 환경보호협회, 소비자단체, 금연협회, 건강협회 등은 있었고 회원으로 구성된 이익집단에는 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 무역협회, 제조업자협회, 사업원탁회의 등이 있었다.

이익집단에 가입한 사람들의 학력을 보면 노조를 제외한 이익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73%가 대학졸업이며 63%가 전문가나 전문직 기술자 직업에 종사하고, 소득 또한 55%가 16000불 이상이었다. 그리고 일반 이익집단이나 노조 두 집단에 가입한 경우는 80%가 대학졸업자이며 70%가 전문가나 전문직 기술자에 종사하고 65%가 16000불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교육, 직업, 수입이 높을수록 두 개 이상의 이익집단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익집단 구성원들의 직업을 보면 일반직 직장인이 59%, 전문직/기술직 종사자 9%, 경영/행정직 7%이며,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2%, 교육직 4%, 기타 19%로 나타났다.

이익집단들이 사용하는 전략으로는 첫째, 신문과 미디어로 사람들과 대화 둘째, 격려 편지나 전보 셋째, 민중들에게 로비 시도 넷째,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사무실과 접촉하여 영향력을 갖거나 다섯째, 쟁점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선전 여섯째, 항의나 시위 등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들 중 미디어를 통한 광고 기법을 사용하는 집단은 31%를 차지하였고, 텔레비전이나 전송자료, 인쇄물을 통한 선전기법은 기업이나 사업협회가 주로 이미지 향상과 주장을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기업가협회, 노조, 시민단체들이 언론과 미디어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재원의 26%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익집단들이 대중의 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용하는 마지막 전략은 시위이었다. 시민운동이나 부인단체들의 1/4, 노조는 9/10이 항의와 시위 전술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ehman and Tierney, 1983).

최근 1990년대 이후 미국의 각 지역 및 전국단위 이익집단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집단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증가되고 있으며 아울러 집단구성원을 보유하지 않은 주나 시 정부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이익기관의 영향력이 공공정책적 혜택추구를 위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손병권, 2001).

### 3) 일본 시민단체의 역할 사례

일본의 이익단체는 주로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되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치참여나 선거참여 및 관련 공무원들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반영시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이익집단의 당사자들과 심의회를 구성하여 그들과의 협의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73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 東京都 武藏野市の 경우 소각장 건립 사례에 대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武藏野市는 1973년 당시 인접 미타카시와 공동으로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나 미타카시의 공동사용 중지표명으로 인해 쓰레기를 자체처리하면서 소각장 건립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의회는 폐기물대책특별위원회를 시는 청소대책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협력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시 정부는 1978년 종합운동장의 수영장을 입지로 결정하였다. 이에 시민들은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자 시민위원회를 조직 시의 일방적 결정과 무조건적 강요, 학교 근린지역, 교통혼잡 등을 요인으로 진정서 및 시위, 선거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 결과 소각장 건설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후지모토 마사노부(藤元政信)를 시장으로 선출하였다. 시장은 시의회의 폐기물대책특위와 시의 청소대책위원회 및 시민위원회와 논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뒤이어 시민위원회의 적극 참여와 간섭 및 보상이라는 시민집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1989년에 합의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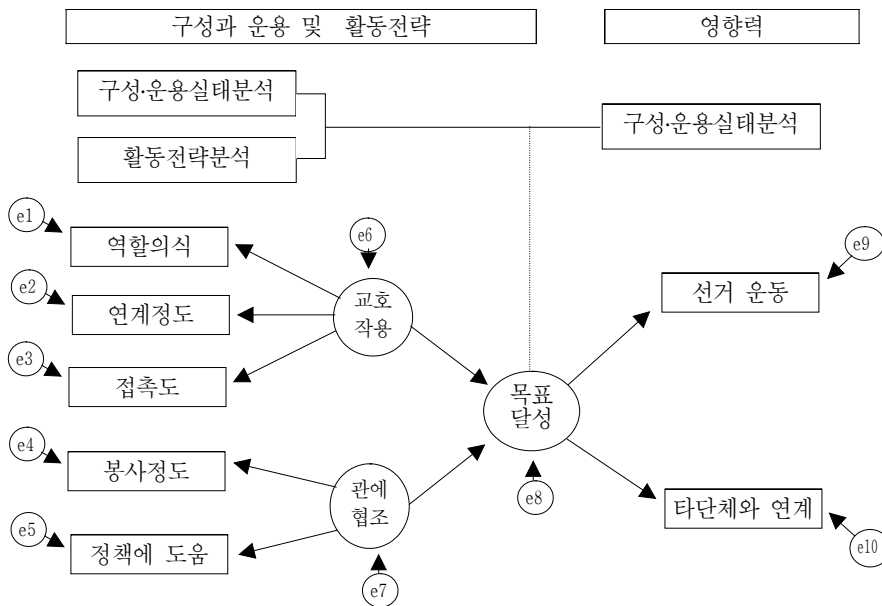
일본에서의 시민단체의 저항 요인은 지방정부의 결정에 시민을 제외시켰고, 이로 인한 외부경제 문제였는데 지방주민의 선거에의 참여와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한 참여를 통해 타결을 이루었다(村松岐夫, 1986; 지충남, 2000).



### Ⅲ. 분석결과

#### 1. 연구 분석 틀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익단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지역시민사회, 주민의 상호관계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 틀을 통해 고찰하였다.



<그림 1> 이익단체의 이론적 분석 틀

첫째, 이익단체장의 개인별 특성을 조사하여 이익단체 구성과 활동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연령, 성별, 성장지, 학력, 출신고교, 출신대학을 조사하였다. 둘째, 이익단체의 구성과 운영 알아보기 위해 이익단체의 현황, 목표, 발전요인, 구성원 참여동기, 자체이익 대변정도, 의사결정상의 합리성, 이익단체의 인지도 등을 고찰하였다.

셋째, 이익단체의 활동과 전략이 될 수 있는 참여방법, 대정부 건의내용, 정책결정기준, 활동전략, 로비통로, 선거운동참여, 연합활동 등을 고찰하였다.

넷째, 이익단체장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그들의 접촉정도, 업무관계자의 영향력 정도, 지방정부 연계정도, 지방정부 기여도, 지방정부의 이익단체에 대한 공정성 등을 고찰하였다.

## 2. 이익단체의 구성과 운용

최근 지역사회는 사회구조의 다층화와 중앙-지방간의 권력관계의 재편, 시민사회의 형성을 통해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주체로서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독자적이고 자율적 행위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집단이 어떠한 목표 하에 조직원들이 참여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활동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조사된 수원시 이익단체장들에 대한 기본 특성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엘리트와 이익단체장의 기본특성

구 분	단체명						학 력				
	연고단체	직능단체	전문가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미확인	계
빈도	12	10	8	3	8	41	2	12	24	7	45
비율(%)	29.3	24.4	19.5	7.3	19.5	100	4.4	26.7	53.3	15.6	100

설문에 조사된 총 이익단체는 연고단체가 12명(29.3%), 직능단체 10명(24.4%), 전문가단체 8명(19.5%), 종교단체 3명(7.3%), 시민단체 8명(19.5%)이었다. 성별 구성을 보면 남자 38명(88.4%), 여자 5명(11.6%)으로 남성 일변도의 단체장 구성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30대 2명(4.4%), 40대 4명(8.9%), 50대 15명(33.3%), 60대 이상 16명(35.5%)으로 나타나 주로 50~60대(68.8%)가 중심 구성임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 4.4%, 고졸이 26.7%, 대졸이상이 53.3%로 엘리트와 이익집단의 경우 대부분 대졸이상의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어 이익단체가 표방하는 목표를 보면 단체구성원의 친목도모는 연고단체가 가장 중요시(83.3%)하고 있으며 단체구성원의 이익도모는 직능단체(45.5%)와 전문가단체(57.1%)가

강조하는 목표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의 정의와 공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다른 단체에 비해 월등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익단체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부분 이익단체가 조직원의 수와 단결력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 전문가단체가 85.7%로 가장 높으며 이어 연고단체 83.3%, 직능단체 81.8%, 시민단체 75%, 종교단체 66.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직원의 수와 단결력 다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연고단체와 시민단체의 경우 조직원의 개인역량과 조직의 명성도를 중요시하고 있고, 종교단체는 조직의 명성도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발전에 대하여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체는 시민단체(8.3%)뿐 이었다. 그리고 소속단체의 목표 수행을 위해 조직원의 수와 단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75%의 사람들은 단체의 이익대변을 위해 적극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익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무엇이 참여 동기가 되어 이익단체에 가입하였는지 펍 흥미 있는 관심사이다. 이익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참여 동기를 보면 연고단체는 12개의 단체 중 6개의 단체(50.0%)가 조직의 명분과 이상을 5개 단체(41.7%)가 사회적 명성을 참여 동기로 주장하고 있고, 직능단체는 11개의 단체 중 5개의 단체(45.5%)가 조직의 명분과 이상 및 물질적 혜택을 참여 동기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 단체는 71.4%가 조직의 명분과 이상을 강조하였고 종교단체는 사회적 명성, 조직의 명분과 이상, 안전의식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

<표 3> 이익단체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비율(%)

영역	단체유형 목표	단체유형					전체
		연고단체	직능단체	전문가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이익단체의 목표	단체구성원 친목도모	83.3	9.1	14.3		9.1	29.5
	단체구성원 이익도모	8.3	45.5	57.1			22.7
	사회봉사	8.3	9.1	14.3	66.7	18.2	15.9
	사회정의 실현		27.3	14.3	33.3	27.3	18.2
	공익문제 해결		9.1			45.5	13.6
이익단체 발전요인	조직원의 수와 단결력	83.3	81.8	85.7	66.7	75	80
	조직원의 개인역량	8.3	9.1			8.3	6.7
	재정능력					8.3	2.2
	지도자의 능력과 로비 스트의 유무		9.1	14.3			4.4
	조직의 명성도	8.3			33.3	8.3	6.7

(계속)

영역	단체유형 목표	연고단체	직능단체	전문가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전체
		구성원의 참여동기	물질적 혜택		45.5		
	사회적 명성	41.7		14.3	33.3	9.1	18.2
	조직내 지위	8.3					2.3
	조직의 명분과 이상	50	45.5	71.4	33.3	72.7	56.8
	안전의식		9.1	14.3	33.3		6.8
자체이익 대변정도	적극적	54.5	91	71.4	33.3	75	70.4
	그저 그러함(중간)	36.4		14.3	66.7	16.7	20.5
	소극적	9.1	9.1	14.3		8.3	91

시민단체 또한 조직의 명분과 이상을 강조하기 위해 이익단체에 참여하였다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11개중 8개의 단체(72.7%)에 해당한다.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거의 모든 조직들이 조직의 명분과 이상을 이익단체에 참여 동기로 보고 있으며 물질적 혜택을 위해서 이익단체에 참여한 단체는 직능단체(45.5%)가 있고, 사회적 명성을 위해 참여한다는 단체는 연고단체(41.7%)뿐이었다.

이익단체가 자기들의 자체이익을 대변하는 정도를 보면 연고단체는 54.6%(6개)가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직능단체는 91%(10개), 전문가단체 71.4%(5개), 종교단체 33.3%(1개), 시민단체 75%(9개)가 적극적으로 대변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상으로 볼 때 각 이익단체는 자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도 직능단체와 시민, 전문가 단체가 특히 강하게 대변하는데 직능단체와 전문가단체는 조직의 구성자체가 직업과 관련하여 그들의 이익보장을 위해 조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노력은 정책결정의 참여와 이익단체가 선거운동에 참여의 정도 및 이익단체의 연합활동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들 간의 관련성 정도를 조사하여 본 결과 이익단체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33(0.05수준에서 유의), 다른 단체와의 연계활동에서 .32(0.05수준에서 유의)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 3. 이익단체의 활동과 전략

위 절에서는 이익단체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 이익단체의 활동과 전략에 관하여 그들의 활동비중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참여방법 및 정부에 대한 건의 내용과 그에 대한 활동전략 및 개별적 접촉, 연합활동 등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lt;표 4&gt; 이익단체의 활동과 전략에 대한 비율(%)

영역	단체유형 목표	연고단체	직능단체	전문가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전체
이익단체 활동비중	정책문제의 제기	10	27.3			27.3	17.1
	의제 채택	20	18.2		100	18.2	19.5
	정책 형성	30	18.2	42.9		27.3	26.8
	정책 집행	30	27.3	42.9		18.2	26.8
	정책 평가	10	9.1	14.3		9.1	9.8
이익단체 참여방법	로비스트 고용						
	단체에 유리한 정보제공	44.4	27.3	14.3		10	23.1
	정책담당자 직접설득	33.3	45.5	42.9	100	40	43.6
	언론을 이용한 여론 환기	22.2	9.1	42.9		50	28.2
	대중동원을 이용한 시위		18.2				5.1
대정부 건의내용	행정규제 및 개혁		88.9	14.3	50	36.4	34.1
	금융과 세제	1637		14.3			7.3
	환경	8.3	11.1	14.3	50	27.3	17.1
	부동산 및 건축	8.3				9.1	4.9
	교육	66.7		57.1		27.3	36.6
이익단체 로비통로	지방의회	33.3	22.2	16.7		20	21.2
	집행기관	33.3	55.6	33.3	100	40	45.5
	시민단체		11.1			20	9.1
	언론	16.7	11.1	33.3		20	18.2
	중앙기관	16.7		16.7			6.1
선거운동 참여	적극적	12.5	63.7	16.7	33.3	27.3	43.0
	그저 그러함	50	36.4	50		45.5	41.0
	소극적	45.5		33.3	66.7	27.3	25.6
이익단체 연합활동	적극적	28.6	54.6	33.3	33.3	50	53.9
	그저 그러함	71.5	63.7	83.3	66.7	58.3	77
	소극적	32.1	36.4	16.7	33.3	8.3	23.1

이익단체들은 사회환경 및 정부와 관련하여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비중을 조사한 결과 연고단체는 정책형성이나 정책집행 분야에 30.0%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의 제 채택에 대해서는 20% 정도 관심을 두고 있다. 직능단체는 정책문제의 제기와 정책 집행에 대하여 27.3% 정도 활동비중을 두고 있고, 전문가단체는 정책형성과 정책 집행에 대하여 42.9% 정도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어 종교단체는 정책의제 채택에 100%, 시민

단체는 정책문제의 제기나 정책형성에 27.3%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익단체의 활동 비중을 전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문가단체나 연고단체, 직능단체는 정책집행에 특히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직능단체와 시민단체는 정책문제의 제기, 전문가 단체와 연고단체 및 시민단체는 정책형성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이익단체들이 자기들의 활동을 위해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익단체의 참여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책담당자를 직접 만나 설득하는 방법(43.6%)인데 이 중에서도 종교단체와 직능단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 연고단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을 환기시킴으로 이익단체의 활동을 인식시키고 있는데 이는 시민단체나 전문가 단체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한다. 또 자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전체의 23.1%를 차지하는데 이 방법은 주로 시민단체나 연고단체나 직능단체가 사용하고 있다.

이익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건의 내용을 보면 연고단체는 교육분야에 대한 내용이 66.7%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금융과 세제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직능단체는 행정규제나 개혁에 대한 내용을 88.9%, 전문가단체는 교육분야에 관한 내용 57.1%, 시민단체는 행정규제와 개혁에 관한 내용(36.4%)을 가장 많이 건의하였다. 여기에서 이익단체의 대정부 건의 내용을 보면 단체별로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연고단체와 전문가 단체는 교육분야를 강조하여 건의하고 있고, 직능단체는 행정규제와 개혁에 관련된 내용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좀 포괄적인데 행정규제와 개혁 및 환경과 교육분야에 대한 내용을 주고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단체에서 원만한 목표달성을 위한 로비의 통로로 연고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주고 사용(33.3%)하고 있으며 직능단체는 직접 집행기관을 통해 로비(55.6%)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단체는 언론과 집행기관을 통해 로비(33.3%)를 하고, 종교단체는 100% 모두 집행기관을 통해 로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의 로비 경로를 보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집행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40%, 지방의회와 언론 및 시민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각 20.0% 이었다. 이익단체들이 별이는 로비통로에 관하여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집행기관을 통해 로비 하는 것이었는데 전체 33개 단체 중 15개 단체인 45.5%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지방의회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는데 21.2%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의무이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의사반영과 동시에 참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익단체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익단체의 목표를 보다 쉽게 이루어 내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며 동시에 후보자들에게 이익단체의 위상을 알리는 기회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연고단체의 경우 소극적으로 참여 비율(45.5%)이 높았다. 그러나 직능단체는 63.7%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였고, 전문가단체는 50.0%가 그저 그러하며, 33.3%가 소극적으로 나타나 이들의 선거에 대한 참여는 약하다 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66.7%가 소극적으로 참여하며 시민단체는 45.5%가 그저 그러하게 참여하고 있고 27.3%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직능단체에서 볼 수 있고 그 외 나머지 단체는 그저 그러한 보통적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단체가 자기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선거운동을 통해 자기 단체를 인지시켜 정무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익단체의 목표추구활동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그리고 이 활동이 다른 단체와도 연계활동을 가져 올 수 있는데 이들간의 관련성을 상관계수로 알아 본 결과 .65(.01수준에서 아주 유의)로서 아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단체들은 자기들의 목표 달성이 잘 되지 않는다 생각될 때에는 타 이익단체와 연합하여 활동하기도 하는데 연고단체의 경우 그저 그렇다가 42.9%로 가장 높고, 적극적으로 연합 28.6%, 소극적으로 연합 32.1%로 나타났으며 직능단체는 54.6%가 적극적으로 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 단체는 50%가 연합활동에 대해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며 33.3%는 적극적으로 연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단체는 3개의 집단 중 1개의 단체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개의 단체는 그저 그러하며 나머지 한 단체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한편 시민단체는 거의 대부분(83.3%)이 연합활동에 적극적이며 극히 일부(8.3%)만이 소극적이었다. 연합 정도에 따라 각 단체들간의 활동을 비교해 보면 시민단체가 가장 연합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그 다음이 직능단체가 활발하게 연합하며 그 나머지 단체는 경향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 3. 이익단체의 영향력

이익단체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익단체장들의 인간관계나 학연 및 지연 등의 개인역량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익단체장들의 출신지역에 대한 집중도는 어떠한지 살펴보았는데 <표 5>와 같다.

<표 5> 이익단체장의 출신지역

구 분	경기수원	경기도	경상도	서울	인천	전라도	충청도	이북	미확인	계
빈 도	12	10	5	2	2	4	3	2	5	45
비율(%)	26.7	22.2	11.1	4.4	4.4	8.8	6.7	4.4	11.1	100

수원시에 소재 하는 이익단체 장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수원시가 26.7%, 경기도출신이 22.2% 경기지역은 총 48.9%의 비교적 높은 집중도를 보이며 경상도 지역이 5명(11.1%), 서울이 4.4%, 인천이 4.4%, 전라도가 4명(8.9%), 충청도가 3명(6.7%)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이익단체장들의 출신 고등학교와 출신대학별 집중도는 어떠한지 분석하였는데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이익단체장의 출신고교·대학별 구분

출신고등학교				출신대학			
지 역	빈도	비율	비 고	지 역	빈도	비율	비 고
수원지역	8	17.6	수원고 3, 수원공고 1, 수원농고 2, 수원여고 1, 삼일고 1,	수원지역	3	6.6	경기대 2, 아주대 1
경기도지역	2	4.4	분일고 1, 안성고 1,	경기지역	2	4.4	강남대 1,
서울지역	5	11.1	서울사대부고 1, 용산고 1, 이대부고 1, 문일고 1, 덕수상고 1	서울지역	24	28.6	건대 2, 경희대 1, 고려대 2, 동국대 1, 서라벌예대 1, 성대 1, 연대 2, 육사 1, 이화여대 1,
경남북지역	2	4.4	브니엘고 1, 김천고 1,	경남북지역			
전남북지역	2	4.4	연산포상고 1, 만경고 1,	전남북지역	1	2.2	전남대 1
충남북지역	2	4.4	온양고 1, 청주고 1	충남북지역	1	2.2	청주대 1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1	2.2	
기타	1	2.2		기타	2	4.4	
무	1	2.2		무	14	31.1	
미확인	21	46.7		미확인	10	22.2	
계	45	100		계	45	100	



이익단체장들의 출신고등학교를 보면 크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을 발견할 수는 없다. 비록 45개의 단체장들 중에서 학력 밝히기를 아주 꺼려하여 21명이 미확인 된 상태이긴 하지만 수원고등학교 출신이 3명, 수원농고 출신 2, 수원공고 출신 1명, 수원여고 출신 1명, 삼일고 출신 1명으로 수원지역 출신고등학교에 대한 집중도는 17.6%이고 이를 경기지역으로 보면 22%로 집중도는 낮다.

출신대학별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45명의 단체장 중에서 24명이 미확인되었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되었거나 인류대학 및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 등의 특징을 발견할 수는 없을 정도로 집중도(11%)는 낮다.

이익단체장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찾아가 만나는 기관을 우선순위별로 12개의 대상기관중 6개를 우선순위별로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정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이익단체의 업무관계자 접촉정도

구 분		1. 상 위 정 부	2. 시 장/ 부시장	3. 담 당 실국장	4. 국 회 의 원	5. 시의원	6. 지 역 경제인	7. 언 론	8. 대 학	9. 교 육 감	10. 이 익 집 단	11. 시 민 단 체	12. 주 민	13. 무응답	전체
관계자 접촉빈도	빈도	1	6	8		2	2	2	2	2	4	6	8	2	45
	비율	2.2	13.3	17.8		4.4	4.4	4.4	4.4	4.4	8.9	13.3	17.8	4.4	100
관계자 영향력정도	빈도	3	13	4	2	2	1	1	1	2	4	2	6	4	45
	비율	6.7	28.9	8.9	4.4	4.4	2.2	2.2	2.2	4.4	8.9	4.4	13.3	8.9	100

이익단체장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찾아가 만나는 기관을 우선순위별로 살펴보면 업무를 담당한 실·국장과 주민을 가장 많이 찾아(17.8%)가며 이어 시장과 부시장 및 시민단체(13.3%)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각 기관들이 이익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보면 1순위로 지적인 사람들의 빈도를 보면 시장과 부시장이 가장 영향력 크다고 지적하였는데 28.9%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지역주민을 들었는데 13.3%, 담당 실·국장이 8.9%, 이익집단이 8.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2순위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는 담당 실·국장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28.9%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시민단체로 13.3%, 시의원이 8.9%, 이익집단이 6.7%이었다. 여기에서 업무관계자를 찾아가 만나는 접촉정도와 관계자의 영향력간의 상관성이 어느 정도 인지 분석하였는데 <표 8>과 같다.

&lt;표 8&gt; 이익단체의 지방정부 연계정도의 상관성

구 분	업무관계자 영향력정도 (1순위자)	업무관계자 영향력정도 (2순위자)
업무관계자 접촉정도(1순위자)	.54**	.33*
업무관계자 접촉정도(2순위자)	3.1*	.37*

\*은 .05수준, \*\*은 .01 수준에서 유의

단체장들이 이익단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관계자를 찾아가 만나는 접촉정도와 관계자의 영향력간의 상관정도는 1순위 자끼리 .54(p <.01)로 매우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순위 자와도 비교적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단체가 단체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자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도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였는데 <표 9>와 같다.

&lt;표 9&gt; 이익단체의 지방정부 연계정도와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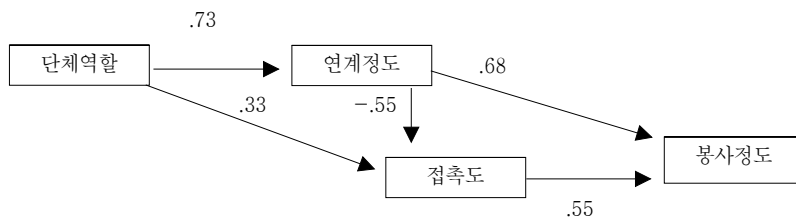
영역	단체유형						
	목표	연고단체	직능단체	전문가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전체
자체이익 대변정도	긴밀함	66.6	77.8	50	100	60	66.7
	그저 그러함		11.1			20	9.1
	긴밀하지 못함	33.4	11.1	50		20	24.3
선거운동 참여	기여함	33.3	63.7	100	100	58.4	61.3
	그저 그러함	25	27.3			16.7	18.2
	기여하지 못함	41.7	9.1			25	20.4

이익단체가 자체이익을 대변하는 정도를 보면 연고단체는 66.6%, 직능단체 77.8%, 전문가단체 50%, 종교단체 100%, 시민단체 60%로 모두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단체와 직능단체가 가장 강하게 대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연고단체, 시민단체, 직능단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이익집단간에 대한 종합논의

지금까지 이익단체장들의 실제 행동과 경험 및 견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익단체의 구성과 운용, 활동전략 및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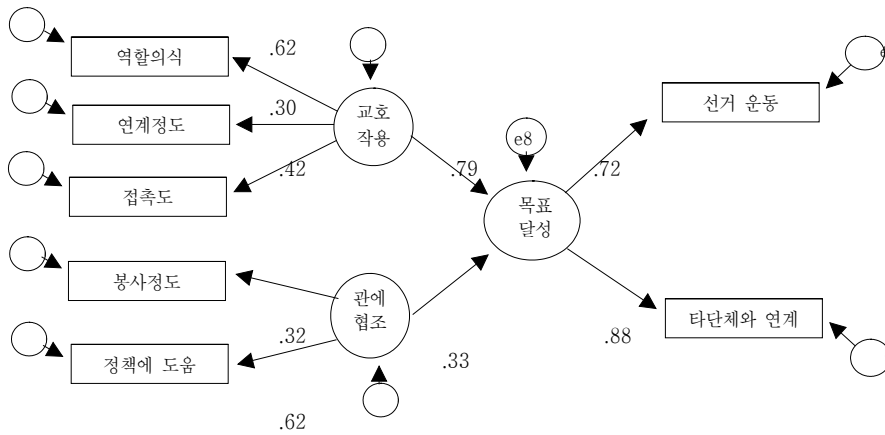
이어 이익단체가 지방정부를 위해 봉사역할을 해야한다는 인지도가 지방단체와 연계를 이룬 정도 및 사업수행을 위해 다른 단체와의 개별접촉을 이루며 이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봉사행위를 하도록 하는 정도가 어떠한지 AMOS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경로분석(path analysis)과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와 적합도는 (그림-2) 및 <표-10>와 같다.



<그림 2> 단체역할에 대한 경로분석

<표 10> 경로분석에 대한 적합도 지수

경로	Estimate	S.E	C.R.	Id-effect
단체역할→연계정도	0.9	0.008	112.5	0.17
단체역할→접촉도	0.36	0.21	1.71	0.02
연계정도→봉사정도	0.95	0.014	67.8	0.0
연계정도→접촉도	-0.44	0.17	2.59	0.0
접촉도→봉사정도	1			0.0



<그림 3> 이익단체의 목표달성과 관련한 공변량 분석

<표 11> 공변량 분석의 적합도

모 델 \ 지 표	Delta1 NFI	Rho1 RFI	Delta2 IFI	Rho2 TLI
Default Model	0.53	0.23	0.609	0.564
Saturated Model	1.00		1.00	1.00
Independence Model	0.00	0.00	0.00	0.00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경로분석결과 단체역할의 인지가 연계정도에 .73, 접촉도에 .33, 연계정도가 봉사정도에 .68, 접촉도가 봉사정도에 .55의 높은 상관을 이루며 그들에 대한 CR값은 단체역할에서 접촉도에 대한 CR값을 제외하고 각각 112.5, 67.8, 2.59 (> 1.96)로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연계정도에서 접촉도에 대한 관계인데 단체의 역할을 인지한 이익집단은 지방관청과 좋은 연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 개별접촉을 할 필요가 없다는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림 3>은 역할의식과 연계정도 및 접촉도를 그들간의 상호 교호작용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고, 봉사정도와 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도움되는 정도를 관에 협조 요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두 요인은 결국 목표달성이라는 요인으로 연계 되며 이 목표 달성요인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선거운동과 타 단체와의 연계시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들간의 공변량 분석결과를 설명하는 모형적합도는 53%로 비교적 집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신뢰성 계수는 56.4%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에 있어 이익집단과 연계 속에서 서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사업결정에 있어 시장/부시장(28.9%), 지역주민(13.3%), 담당실국장(8.9%)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과 연계성을 잘 이루려 노력(연고단체는 66.6%, 직능단체 77.8%, 전문가단체 50%, 종교단체 100%, 시민단체 60%)한다.

현재 수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결정에서 이익단체는 이들과 관련하여 적절한 연계관계를 이루면서 때로는 불이익행사나 선거운동을 통해 그들의 목표를 표명하는데 이는 이정희(1997)나 김영래(1997)의 연구 및 미국 워싱턴 시나 일본 東京都 武藏野市の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 IV. 결 론

지금까지 수원시의 이익집단에 관하여 그 구성과 운용, 활동전략 및 영향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내용을 통해 조사 분석된 사실들을 통해 도출된 이익단체에 대한 특성과 연결망 및 영향력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 이익 단체들의 활동목표를 조사한 결과 3가지 양태로 나타났는데 연고단체는 구성원들의 친목도모를 가장 중요시하며, 직능단체와 전문가단체는 구성원의 이익을 크게 강조하고, 시민단체는 이익보다는 사회의 정의와 공익문제해결을 강조하였다. 특히 직능단체와 전문가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 조직원의 수와 단결력을 크게 강조하면서 자체 이익을 아주 강하게 대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직구성 동기가 직업과 관련하여 그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지방선거 및 지역의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연구는 정책결정 시기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후보자들을 당에 관계없이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원시의 경우 전문가단체나 연고단체, 직능단체는 정책집행에 특히 역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정책문제의 제기와 형성에, 연고단체는 정책형성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여기에서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지 않는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초기에 사회 정의와 공익에 입각하여 정책이 형성되

기를 바라는 집단목표와 일치하고, 전문가단체와 직능단체는 정책집행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그들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관심의 차이에 기인된다.

이익단체는 목표 달성을 위해 주로 정책담당자를 직접 만나 설득(43.6%)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이전 연구나 미국 등의 사례와 비슷하다. 특히 시민단체와 전문가 단체는 언론(28%)을 이용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각 이익집단의 채원이 확보될수록 언론 등의 매스컴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익단체장들은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업무를 담당할 실·국장과 주민 및 시장과 부시장을 주로 찾고 있는데 이들을 만나기 위한 접촉의 시도는 그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상관정도는 .54( $p < .01$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는 이익단체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관계자를 이익단체장이 제대로 잘 찾아가 만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평상시에도 영향력 관계에 있는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특히 종교단체와 직능단체가 긴밀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이 연고단체, 시민단체, 직능단체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익집단의 이익표출은 사회가 발전하고 다원화 될수록 정치참여에 적극적인데 이러한 결과는 집단의 대표를 정치 후보로 내세워 후원하거나 타 단체와 연합을 통한 시위 등의 강압적 접근통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김영래. (1997). 「이익집단 정치와 이익갈등」. 서울: 도서출판 한울.
- \_\_\_\_\_. (1986). 한국 이익집단의 형성과 발전. 「현대사회」.
- 김왕식. (1981). 「한국 정치과정에 있어서 한국노총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문태훈. (1997). 정책유형과 이익갈등의 형태.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서울: 한울.
- 박상필. (2000). 이익집단 갈등과 사회자본: 경실련의 한약분재 조정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34(2): 121-138.
- 박경태. (1997). 사회일반단체.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서울: 한울.
- 박경원. (1997). 지방자치와 이익갈등 조정제도.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서울: 한울.
- 박종민 (편) (2000).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서울: 나남출판.
- 박천오. (1995). 한국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영향력과 활동패턴. 「한국행정학보」, 33(1): 239-259.
- 성경룡 외. (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 손병권. (2001). 미국의 다원주의: 현실, 이론, 그리고 미래. (미국학 연구소 편), 「21세기 미국의 역사적 전망 I」,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송희준. (1999).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한국행정연구」, 8(1): 5-28.
- 수원시. (2001). 「수원시통계연보」. 수원: 수원시청.
- 수원시의회. (2002). 「수원시의회록」. 수원: 수원시의회.
- 안해균. (1965). 한국 이익집단에 관한 자료연구. 「행정논총」, 3(1): 13-25.
- 윤형섭·김영래. (1989). 한국 이익집단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3(1): 39-80.
- 이광우. (1990). 이익집단의 정치적 기능과 압력행사방법. 「한국정치학회보」, 24(2): 95-122.
- 이병갑. (1980).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 모델. 「한국행정학보」, 14: 187-200.
- 이정희. (1997). 한국 이익집단의 4대 지방선거 참여전략. 「의정연구」, 3(1): 249~270.
- \_\_\_\_\_. (1994). 이익집단 구성원의 정치의식과 정치행태. 「한국정치학회보」, 27(2): 245-260.
- 지충남. (2000). 쓰레기 소각장 입지분쟁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1): 173-197.
- 최진혁. (2001).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평가모델의 발전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12: 259-280.

- 村松岐夫. (1986). 利益團體 行政政黨. 「自治研究」, 62(3): 22-27.
- Almond, Gabriel A. and Bingham Powell, Jr. (1974). *Comparative Politics*. Boston, Mass: Little, Brown and Co.
- Ando, Amy W. (2003). Do Interest Groups Compete? An Application to Endangered Species. *Public Choice*. 114: 137-160
- Bachrach, Peter, and Morton S. Baratz. (1970). *Power and Pover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ntley, Arthur F. (1967). *The Press of Government*.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Cohen, Hean L. and Andrew Arato.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Cook, Brian J. (1996). *Bureaucracy and Self-Government: Reconsidering the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American Politic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 Dahl, Robert A. (1961). *Who Governs: Democracy and Power in an American C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rossman, Gene M. (2002). *Grossman Interest groups and trade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ys, R. (2001). *Who speaks for the poor : national interest groups and social policy*. New York: Routledge.
- Hrebenar, R. J., & Scott, Ruth K. (1982). *Interest Group Politics in America*.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unter, Floyd. (1953). *Community Power Structure: A Study of Decision Maker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Lehman, S.K., and J.T. Tierney. (1983). *Organized Interests and American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 Logan, John R., and Harvey L. Molotch. (1987).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Berkel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ills, C. W. (1956). *The Power Eli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Paul. (1981). *City Limi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lsby, Nelson W. (1980). *Community power and Political the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alisbury, Robert H. (1970). *Interest Group Politics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 Schattschneider, E.E. (1942). *Interest Group Politics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 Walker, Jack L. (1991), *Mobilizing Interest Group in America Patrons, Professions and Social Movements*.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